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26.(목) 14:00 < 11.27.(금) 조간 > 배포 2026. 11. 26.(목)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사업 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체코와의 신뢰 공고화 방안 점검

- 장관 주재「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2차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한수원과 대우·두산 컨소시엄의 두코바니 시공분야 공동협력 협약 종료(11.20일) 이후 최초로 11.26일(목)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2차 회의를 주재하여, 각 기업이 사업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26.12월 체코 하블리첵 제1부총리 방한 시 체코측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는 11월 첫주부터 추진된 산업부 장관·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으로, 장관 주재「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1차 회의(11.12일)와 차관 주재「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1·2차 회의(11.2일·18일)에 이어서 팀코리아 전반의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공기업이 모두 참석했다. 팀코리아 참여기업은「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1차 회의(11.12일)에서 발표한 시공사 교체 과정 중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계획 등을 중심으로 각 사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이행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한수원은 11.20일 기존 대우·두산 시공 컨소시엄과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시공분야 공동협력 협약의 종료를 공식화한 후, 신규 시공사 선정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인허가 신청 등 주요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 체코 하블리첵 제1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한과 이를 계기로 12.10일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체코측에 두코바니 원전사업이 전체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체코측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하블리첵 제1부총리와 함께 방한하는 원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양국 원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은 1차 팀코리아 회의에서 마련한 계획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체코 하블리첵 제1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의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과 실행 의지를 전달하여 체코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이수정 (044-203-52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